

41번째, 농기구이야기

단단한 흙을 부수거나 파내는 ‘괭이’



○ 편집 및 발행 : 농협중앙회 농업박물관 ○ 발행일 : 2011.8.1
○ 본 자료의 저작권은 농업박물관에 있으며, 무단도용 및 전재를 불허합니다.

1. 괭이의 개념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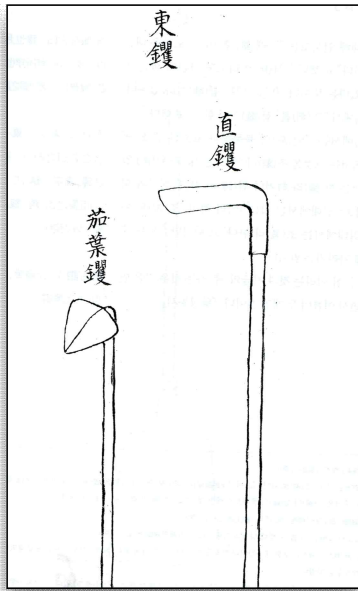
괭이는 땅을 파거나 흙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이다. 괭이의 기원은 농경문화의 시작과 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초기적인 형태의 농기구이다.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 뿔괭이·돌괭이·곰배괭이 등으로 보아 괭이의 사용은 매우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후반 편찬된 『해동농서 海東農書』에는 괭이를 ‘괭(鑿)’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밭을 짚어 일구는 연장으로 황무지를 개간할 때 쓰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곧은괭이[直鑿]와 가짓잎괭이[茄葉鑿]의 명칭의 괭이가 있었다”고 한다. 1886년에 지은 『농정촬요(農政撮要)』에서는 ‘송곳괭이·곶괭이·가릿갓튼괭이·장도리갓튼괭이’ 라고 표기되어 있다. 조선 초기 하위지(河緯地)의 유서에는 ‘괭이(卦伊)’로 표기되었으며, 『고사신서 攷事新書』 농포문(農圃門)의 ‘노작(魯斫)’도 괭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에 따라 괭이(경기도 안산, 강원도 도계, 제주도), 꺽이(경상남도 영산), 팽이(전라남도 의 구례·강진·거문도), 팽이(인천광역시 덕적), 괭지, 괭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돌괭이(좌)와 나무괭이(우)>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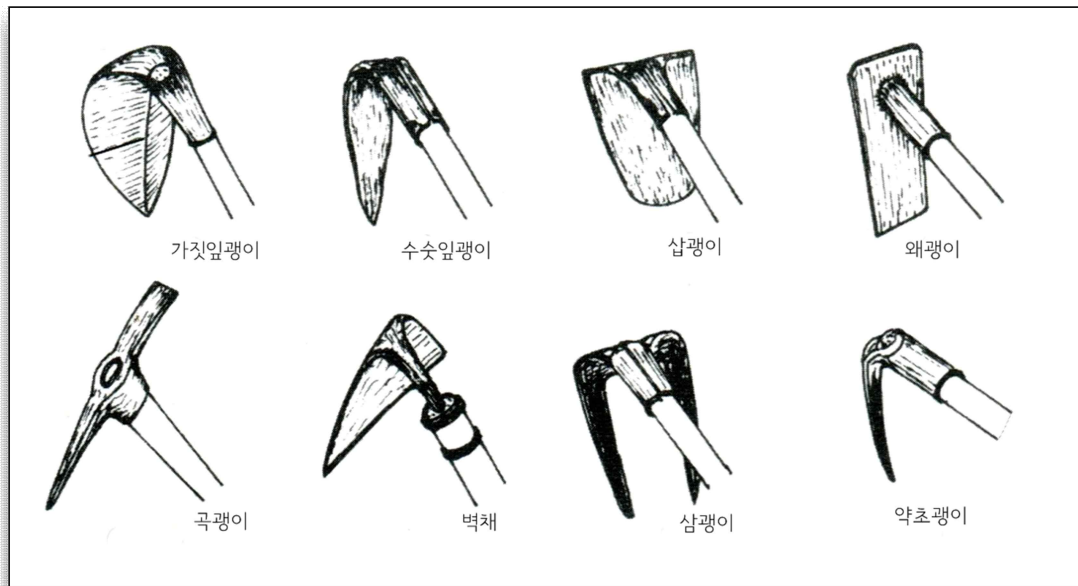
<임원경제지, 우리나라 팽이 林園經濟志 ‘東鑿’>

2. 팽이의 형태

팽이는 청동기 시대에 발견되는 팽이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연장중 하나이다. 팽이의 일반적인 형태는 넓적한 쇠끝이 'ㄱ'자로 구부러져 괴구멍(자루를 박기 위해 둥글게 목을 만든 날의 한쪽 부분 중 자루를 박는 구멍)을 이룬 날에 긴 자루를 박은 것이다.

팽이는 모양에 따라 가짓잎팽이, 수숫잎팽이, 삽팽이, 왜팽이, 벽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형태는 각각의 토질이나 쓰임에 따라 날의 길이와 너비, 자루와의 각도, 중량 등의 차이가 크다.

예전의 팽이는 날 끝에 강철을 입혀서 사용했지만, 현재는 날 전부를 강철이나 주철로 만들어 사용하며, 날의 모양이 위와 아래의 너비가 같고 끝이 둥근 것을 주로 사용한다. 자루는 대개 참나무나 느티나무 등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며, 자루의 길이는 날의 종류, 토질, 사용자의 키 등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5m 정도이며, 굵기는 3-4cm이며 원형이나 타원형을 이룬다.



<괭이의 종류> ©박호석

3. 괭이의 용도

일반적으로 괭이는 주로 흙을 파고 깨며 골타기(밭에 고랑을 만드는 일)나 김매기 등에 쓰고 밭을 일구거나 정지(整地: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일)작업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그밖에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 다양한 괭이가 있다.

곡괭이는 현재에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도구로 돌이 많은 땅을 갈거나 단단한 땅을 파거나 할 때 주로 이용하였다. 1886년에 간행된 『농정촬요(農政撮要)』에서는 곡괭이를 설명하며 “모를 심고 한 번 매 준 뒤에 곡괭이로 포기 사이를 두드려서 흙이 굳어지지 않도록 한다.”고 적었다. 괭이의 모양이 황새(실제로는 백로) 머리를 닮아서 황새곡괭이라고도 한다.



<삽괭이>



<인삼괭이(삼괭이)>©국립민속박물관

생강굴곡괭이는 생강을 캐 때 사용하는 곡괭이로 단단한 땅을 일굴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괭이보다 특별히 날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한쪽이나 양쪽으로 좁고 뾰족하게 날을 만든다. 인삼곡괭이는 인삼을 캐는 데에 사용하는 곡괭이로, 일반 농가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인삼을 수확할 때 사용한다. 인삼은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잔뿌리가 많으므로 캐 때에 날이 넓은 일반 호미나 괭이를 쓰면 땅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 넓은 날에 인삼뿌리를 상하는 수가 많아서 적합하지 못하다. 인삼곡괭이의 형태는 꼬챙이처럼 길고 끝이 뾰족한 두 개의 날이 갈취처럼 ㄱ자로 휘어졌고, 몸체는 괴통으로 되어서 나무자루를 꽂았다. 인삼을 캐는 방법은 자루를 잡고 깊이 꽂아서 끌어당기면 인삼뿌리가 흙에 쌓인 채 올라온다.

4. 괭이질 소리

아래의 밭일구는 소리는 산간지역에서 화전(火田)을 만드는 과정에서 괭이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다. 화전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산에 불을 놓아 나무가 다 타고 재가 되면, 이어서 땅 속에 박힌 나무뿌리와 돌 따위를 파내서 흙만 남도록 한다. 이때 괭이를 이용해서 나무뿌리와 돌을 파내는데, 이것은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므로 노래를 불러 이를 승화시켰다.

신농씨의 본을받아 에이여라 광이야
 이팔밭을 파가지고 에이여라 광이야
 누캥먹고 누캥사나 에이여라 광이야
 광이농사 잘도된다 에이여라 광이야
 금년에도 풍년지고 에이여라 광이야
 내년에도 풍년되고 에이여라 광이야
 이농사가 잘만되면 에이여라 광이야

부모봉양 잘할거고 에이여라 광이야
자손들도 배불리고 에이여라 광이야
-깡이소리, 강릉어문학7, 강원도 영월

산이 많은 경북지방에도 화전농사가 많이 이루어져 깡이질이 많았다. 다음은 경북 영양의 깡이질 소리이다.

여허 깡이여
모여드소 모여드소/ 깡이꾼들 모여드소
깡애자루 무푸리나무/ 깡이쫄는 깡철쫄데
기역자로 깡이 치며/ 니은자로 자리 끼워
어깨 미고 함께 모여/ 일심 받아 쭈워주소
억새풀은 뿌리를 캐고/ 잡목을랑 요리만 치소

4, 깡이와 풍습

경상남도 지방에서는 칠월 초순경, 세번째의 논을 다 맨 뒤에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일꾼들을 하루 놀린다. 이 때에는 농사가 제일 잘 된 집을 골라 그 집의 일꾼을 깡이자루에 태우고 농악을 울리며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주인집에서는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낸다. 이를 ‘깡이자리탄다’고 한다.

남부지방에서는 새해 첫 장에 가서 깡이는 사지 않는다. 이 연장은 땅이나 흙을 파헤치는 데 쓰므로, 깡이를 사면 그 해의 재복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서유구, 『임원경제지』 본리지3, 2009.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농기구도감』, 2001
『한민족역사도감 생업』, 국립민속박물관, 2008.
최상일,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돌베개, 2002